

CAMP NEWSLETTER

캠프 뉴스레터
도시와 농촌, 상생의 길

2023 여름호, July

Vol. 48

캠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두리안 농가 소득증대 프로젝트 착수



▲ 민다나오 사업 론칭 행사와 업무 협약식 (캠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필리핀 민다나오개발청, 필리핀 서던민다나오대학교, 필리핀국립대학 민다나오캠퍼스)

3월 30일, 캠프가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론칭 행사와 함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민관협력 사업인 '필리핀 민다나오 두리안 생산자 협동조합 조직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Mindanao)섬은 필리핀 농업생산량의 35%를 차지하지만 필리핀 내 빈곤율이 36%로 가장 높으며,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이 발달했으나 기후위기와 농업 가치사슬의 문제로 농민들의 빈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민다나오 개발청(MinDA, Mindanao Development Authority)은 농업 문제의 해결이 곧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근본적인 방법임을 제시하고, 농민 조직화를 강조했습니다.

캠프는 민다나오섬 다바오시(Davao City) 칼리난 지역(Calinan District) 농가의 90%가 두리안을 생산함에 주목하고, 4개의 바랑가이(Sirib, Tamayong, Wangan, Manuel Guianga)를 대상으로 농업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두리안 농가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교육 활동을 통한 **환경적 가치**, 사업 대상 4개 바랑가이 두리안 농가 생산 조직 설립을 통한 **사회적 가치**, 그리고 **거버넌스** 요소로 사업

대상 4개 바랑가이와 민다나오 농민조직 연합체(UNORKA), 민다나오 개발청 및 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가지 가치를 포괄하는 ESG 기반 농업 개발사업입니다.

사업 론칭 행사에는 다바오 시청과 민다나오 개발청, KOICA 필리핀 사무소를 포함한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다바오 시 의원인 Marissa S. Abella의 축사를 시작으로 민다나오 개발청 및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의 격려사 그리고 MOU 체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캠프의 민다나오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다나오개발포럼 캠프 사업 소개

두리안 농가 생산기술교육 및 민다나오개발포럼 캠프 사례 소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캠프가 진행되는 '두리안 생산자 협동조합 조직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4개 바랑가이 두리안 농가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생산기술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두리안 농가와 지역 고등학생 등 총 600여명이 참여하여 사업 브리핑 및 기후후위에 대처하는 두리안 재배기술, 태국의

두리안 산업 사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함께하는 서던민다나오 대학교 기술팀에서 농민분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두리안 농업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 18일, 2023 민다나오개발포럼 (Mindanao Development Forum 2023)에 캠프가 사업 파트너 기관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민다나오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민다나오 개발청 장관 Maria Belen S. Acosta와 민다나오 다바오 시장인 Sebastian Baste Z. Duterte가 참여했으며, 캠프의 민다나오 사업인 '두리안 생산자 협동조합 조직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사업'이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소개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지역 고등학생들



바랑가이 Sirib 두리안 농가



민다나오개발포럼 참가



캠프의 봉사단원들과 가족들

'아들의 활동현장을 걸어보다' 캠프 가족 현장 방문기



캠프 방문기 보러가기

글 | 이장범(충청북도 도의원)

지난 5월, 가족들과 국제개발 NGO 캠프의 필리핀 현장에서 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승주 단원)을 만나러 필리핀 마닐라를 다녀왔습니다.

늦은 밤 공항으로 마중 나온 아들은 떠나기 전보다 조금 여윌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게 좀 속상했나 본데, 그래도 여전히 잘생긴 아들과 아내가 애뜻한 모자 상봉하는 걸 보며 가족이 같이 오길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방문 동안 아들이 활동하는 마카티의 친환경 경매장 올가(ORGA)와 딸락주 산호세 시에 위치한 지속가능발전센터를 견학했습니다. 대도시 마닐라와는 달리 확연한 농촌인 딸락에는 캠프의 도정 및 가공 시설, 양계장, 논 등이 펼쳐져 있더군요.

이곳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가공되어 마카티의 중산층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구조였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신 이철용 대표님과 단원들의 만남을 통해 캠프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과 사업 지역의 고충도 들었지만 성과도 적지 않은 듯하여, 제 아들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의 귀중한 시간 투자가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며 서둘지만 '안녕하세요' 하며 밝게 웃어주던 청소년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 필리핀까지 와서 귀중한 시간을 사는 멋진 제 아들과 동료 봉사단원 청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캠프 딸락 지속가능발전센터 방문



애뜻한 모자상봉

캠프의 사회적가치에 함께 동참하는 신임이사 이대중 교수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이대중 이사

Q. 먼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캠프 뉴스레터 구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캠프에 새롭게 부임하게 된 이대중 이사입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에서 국제관계, 국제경제 분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산 그리고 부산대학교로 옮기게 된 것은 이제 막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997년부터 공직에 몸을 담아서 고용노동부,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주로 학자이기보다는 현장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계속 활동했습니다. 캠프와의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외경제, 대외통상 특히 개발지원 등 개발정책에 업무를 맡은 바 있으며, 해외 근무도 필리핀, 베트남에서 있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애착과 경험이 있을 수 있겠네요.

Q. 이사님과 캠프의 첫 만남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김종걸 이사장님을 통해 캠프의 활동과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종걸 이사장님과는 2011년도에 국회와 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재정이라는 국정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계기로 이제 13년이 넘어 가네요.

이사장님은 당시에 민간차원에서 법제정을 주도하시며 정부에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자문하는 역할이셨고, 저는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해당 프로젝트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팀장을 맡으며 이사장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법제정은 민관, 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 빠르게 진행되어 반년 만에 마무리

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종걸 이사장님과는 해당 업무가 끝난 후에도 한국 사회와 경제를 고민하는 부분이 비슷해 인연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철용 대표님, 조부영 지부장님은 지난해 8월에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에 파견 근무하면서 처음 뵈었는데, 캠프가 현장에서 하는 역할과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캠프 이사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제3영역의 모델 개발’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대부분이 정부 주도,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정책에서는 기본계획, 발전계획, 실행계획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개발협력도 예외는 아니죠.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주도의 계획과 실행은 빠르고 추진력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민간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이 성숙하지 못한다면 절반의 성과 밖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외개발과 원조도 많은 부분에서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도 이 영역을 민간이나 제3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캠프가 이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성의 핵심 원칙은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주민 주도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기술과 자질을 훈련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정부가 주도하면 분명히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캠프가 좋은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속가능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 나간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와 사회적가치를 창조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캠프에서 특별히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필리핀의 마카티에 유기농 농산품 판매 사회적기업인 네이처링크(NatureLink) ORGA 매장이 올해 초 오픈했다고 들어서 매장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캠프의 봉제센터 사회적기업 익팅(Igting)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전에 베트남에서 근무할 때도 시골 봉제센터에서 현지 주민들이 기념품을 만들고, 이를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판매하는 네트워크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지원하는 것을 넘어 서로 돕고 지속가능하게 이어가는 것이 캠프의 역할로서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캠프 뉴스레터 구독자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진 다른 경험들이 캠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나 각자의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캠프의 활동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캠프의 민간대사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Christine Lagarde와 함께



김종걸 이사장과 함께

01



캠프 사회적경제 서포터즈, CAMPER 4기

캠프X사회연대경제 서포터즈 CAMPER(캠퍼) 4기를 소개합니다. 캠퍼는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연대경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28명, 8개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캠퍼는 6월부터 시작된 '캠프X사회적경제 토크아보기' 5회 강의와 전문가 정책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여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연대경제에 관심있는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를 홍보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더불어, 5회 강의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하고 발전시키는 국제개발협력의 사회연대경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젊은 사회연대경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캠퍼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2



캠프 국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캠프 공식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대상(개인,단체,교회)에 따라 캠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기'가 신설되었으며, 사회연대경제, 교육, 지역개발센터를 포함한 캠프의 사업내용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평화 ODA 페이지에서는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온라인 전시회"를, 세계시민교육 페이지에서는 "게더타운 '타워빌 맵(Towerville Map)"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에서는 캠프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스마일타워빌' 전문과, 캠프의 다양한 사업을 사례 분석한 연구 논문들이 게재되었습니다. 자료실의 모든 자료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캠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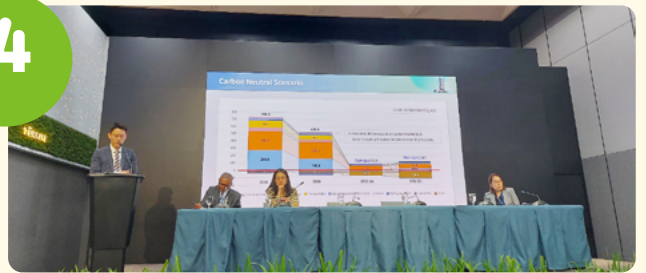


그린굿스, 캠프 사업 현장 방문

지난 4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연대경제프로그램 1단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주)그린굿스가 필리핀 캠프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그린굿스는 라오스에서 양계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현지시장 개척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필리핀과 라오스에서 양계사업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번 1단계 사업을 통해 친환경 양계의 확산과 현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현지 청년 사회적기업가 교육 및 비즈니스모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두 기관이 충실한 사업 수행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04



캠프, ADB와 한국에너지공단 주최 '아시아청정에너지포럼' 발표

아시아개발은행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주최한 '2023 아시아청정에너지포럼(ACEF)'에서 (사)캠프는 중소형 태양광 펌프 시스템을 활용한 농가용수 확보 방안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엘니뇨와 같은 기후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어려움에, 농가는 높은 기름값으로 물 부족 위기에 처해있고, 이는 농사를 포기하는 어려운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태양광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를 농업용수 활용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캠프의 사업지역인 딸락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하여,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원 계좌

KEB 하나은행
415 - 890009 - 19504
(사단법인 캠프)



캠프 후원하기

- www.icamp.asia
- campint@icamp.asia
- blog.naver.com/camplove11
- www.facebook.com/camp.asia
- [@camp_int](https://www.instagram.com/camp_int)
- 유튜브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 카카오톡 채널
카톡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 캠프 게더타운 <https://url.kr/9lyca8>

캠프 본부(한국)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9길 28-1 (당산동6가) 3층
Tel. 02-3147-0309, 0310 Fax. 02-3147-0308

캠프 아시아(필리핀)

- 마닐라** : ORGA store, G/F, 115 Gamboa, Legazpi Village, Makati, 1229 Kalakhang Maynila
- 불라칸** : Lot A-2, Upper Quarry, Barangay Minuyan proper, San Jose Del Monte City, Bulacan
- 딸락** : Sapang Kuran, Barangay Moriones, San Jose, Tarlac
- 민다나오** : Lagudas Farm, Purok 3, Brgy. Sirib, Calinan Dist., Davao City
Tel. +63-2-697-6076

CAMP NEWSLETTER

사단법인 캠프
자립선교 이야기

2023 여름호, July

Vol. 48

자립선교, 폭넓게 바라보아야

글 | 이철용 목사(대표, 사단법인 캠프)



▲ 필리핀 자립농장의 친환경 양계장

혹자는 새로운 한국교회의 선교를 말하면서 기존의 방식은 틀렸고,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안으로 자립선교를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시대의 선교는 예전과 그 모습과 방향에서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모두 자립선교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위와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 집니다. 자립선교라고 하면, 선교지의 자립을 위해서 경제적 자립이 필수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사'라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 필요해보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빈곤선교센터(사단법인 캠프)는 지난 2015년부터 자립선교를 위해 작은 단위의 양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

안 열심히 병아리를 키웠고 초란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장사'는 경영을 말하는 것인데, 유통관만 생산했지, 유통관을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냉장보관 시설이 필요한지도 몰랐기에 40도가 넘는 기온에 대처하기 어려웠습니다. 경험이 없던 목사이기에 시행착오가 너무 컸습니다. 이러한 좌충우돌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딸락 사역지를 방문하고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분들이 보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선배님들 가운데 경제적 자립에 성공한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모두가 그렇게 성공하기 어려운데, 우리

를 둘러싼 시대적 요구는 모두에게 자립선교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무시하고 자립선교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선교지는 경제적 자립도 필요하고 건강한 영적 양육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는 예배당도 필요하고, 가난한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는 교인들의 소득증대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하나의 길로 갈 수 없는 현실이기에 현지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이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립선교를 위해서는 준비와 훈련, 마인드 셋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립선교가 어렵다면, 그것에 매달리기 보다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립선교를 넓게 바라보지 않으면, 한 발 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립선교를 향한 한걸음, 소수민족 아이따 마을 '마뚝교회'



▲ 마뚝교회 전경

필리핀 소수민족 아이따들의 '마뚝교회'

마뚝교회는 필리핀 딸락주 산호세시의 필리핀 소수민족 아이따 민족이 거주하는 마뚝(Maamot) 지역에 위치한 감리교 교회입니다.

마뚝은 기존에 아이따 민족이 전통적으로 모여살고 있는 마을과 정부의 댐 건설로 이주한 재정착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뚝 교회도 두 곳에 각각 위치해, 주일마다 두 곳에서 모두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을에서는 안나(Anna Tutaan) 목사가, 재정착 지역에는 남편인 루디(Rodelio Tutaan) 목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뚝교회는 필리핀의 활화산 중 하나인 피나투보 산이 터지기 일 년 전인 199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마뚝 지역은 안나 목사님의 고향으로, 마뚝교회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작년 7월 마뚝교회의 담당 목회자로 부임했습니다. 마뚝교회는 총 65명(기존 마을에 30명, 재정착 지역에 35명)의 교인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주기적으로 소수민족 언어와 때로는 따갈로그어를 가르칩니다. 여름에는 마뚝 지역의 아이들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여는 등 마뚝 지역의 중심이 되어 교회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나 목사님은 산호세시 시청에서 소수민족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캠프와는 시청에서 진행한 소수민족 대상 버섯 생산 지원을 통해 처음 인연이 되었고, 그 만남이 이어져 깊게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옛 마뚝교회 건물
(현 버섯 생산시설) ▶



▲ 버섯백을 생산하는 교인들

버섯생산으로 자립을 실현하는 마뚝교회



현재 마뚝교회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버섯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립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한 버섯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 중 10%는 교회에, 45%는 함께 일한 교인들에게, 45%는 다음 버섯 농사를 위한 공동자금으로 관리합니다.

캠프는 마뚝교회가 자체적으로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난 겨울 비전트립에서 구하리교회, 과천교회와 함께 공간을 정비하고 초기 생산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부와 협력해 버섯백 생산과 가공 기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마뚝교회는 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버섯을 생산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뚝교회는 "All over the community"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소수민족 아이들을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을 중요한 비전으로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뚝 지역의 환경과 자연을 더 발전시켜서 사명을 다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버섯 생산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뚝교회는 버섯 생산을 통해서 십일조로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다시 지역을 섬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더불어, 버섯 생산을 확장해 마뚝 지역을 넘어서 산호세시 내 다른 지역 소수민족들의 자립과 더 많은 이웃의 필요를 돕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버섯크래커 시범 가공



▲과천교회 청년부와 마뚝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의지하는 삶



글 | 박성연 단원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KOICA-NGO봉사단으로서 캠프 필리핀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성연 단원입니다. 저는 현재 필리핀 딸락 지역에서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계를 쌓으며 현장을 경험하고, 캠프의 여러 국제개발 협력 사업들을 보조하며 실무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렇게, 저는 국제개발협력의 활동가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입시를 치르던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비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품어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몇 년 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7월, 저는 대학생이 되어 맞이한 첫 여름방학에 모교회인 하늘꿈연동교회의 청년부 비전트립을 통해 캠프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났던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았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을 보이시고, 이 길로 향하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비전트립에서 익팅(igtting) 어머니들께 "나중에 저는 꼭 타워빌에 다시 올거예요!"라고 외쳤던 다짐은 3년 후인 2022년 여름, NGO봉사 단원으로 캠프 필리핀 사역지에 파견되면서 실현되었습니다.



▲ 익팅 어머니들, 필리핀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 학생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파티

단원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니 캠프와 익팅, 그리고 타워빌 지역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료 단원들과 함께 봉제센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가치 역량 강화교육, 지역 내의 새로운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봉제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주도적으로 과정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익팅을 향한 어머니들의 주체성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수료식으로 진행되었던 패션쇼에서는 봉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어머니들 본인이 만든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박차오름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캠프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사역지에서 저를 영어이름 Julian으로 불러주며 함께 하는 캠프 식구들, 익팅 어머니들, 농민 분들, 지역의 아이들과 서로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곳에서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순탄치만은 않은 사역지에서의 삶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 대한 저의 비전에도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동행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 예비하심,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익팅 역량강화교육 수료식 및 패션쇼



농촌 자립선교의 중심이 되는 캠ป์ '딸락 지속가능발전센터'

캠ป์ 딸락 지속가능발전센터는 필리핀 딸락주 산호세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따 소수민족, 주변 마을인 모리오네스 주민들과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 옥수수, 콩, 버섯, 생강 등의 농산품들을 생산·가공하여 '농촌 자립선교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센터 전경



▲ 센터에서 함께하는 주민들 (왼쪽부터 꾸야 벤, 꾸야 텍교)

주민들의 삶이 담긴 자립선교

1. 농업 교육·훈련 사역

지속가능발전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쟁력 있는 품종들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의 농업부와 협력해 교육 및 훈련 사역을 진행합니다.

2. 농산품 생산·가공 지원 사역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한 지역의 농산품은 지속가능발전센터를 통해 부가가치 있는 가공제품으로 생산 및 개발을 지원합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센터는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도정하여 건강한 쌀을 만들고, 콩을 두부와 두부과자로 가공해 마카티 매장에서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 생강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이용하여 상품 개발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지역 아동 문화·교육 사역

센터의 한편에 자리한 '꿈 도서관'은 지역 아동들을 위한 작은 문화센터입니다. 꿈 도서관의 책들과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식적·문화적 경험을 지원합니다. 센터의 넓은 공터는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체육 공간이 되어줍니다.

바람으로 물을 만들고, 태양으로 전기를 만드는 자립선교

센터에서는 바람의 힘을 이용한 풍차로 센터의 모든 물을 공급하고, 태양열을 이용해 부족한 전기를 얻습니다.

농업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왕겨, 미강, 깨진 쌀, 달걀 껍데기 등)들은 자연양계와 농업에 사용됩니다. 지속가능발전센터는 산호세시의 에너지 자립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농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자립선교를 함께하는 사람들

지속가능발전센터는 산호세시의 협력교회, 지역주민들, 다양한 지역정부기관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센터가 위치한 사팡쿠란 지역의 큰 어른이자 센터의 안전을 책임져주시는 꾸야 텍교, 센터의 시설관리와 도정시설의 야간 안전을 살피시는 아이따 소수민족의 벤과 디나 부부, 지역 농산품 가공을 협력하는 로나와 나나이 그레이스, 센터에 고장 난 기계의 설비를 도와주는 협력 농민이자 지역 엔지니어 꾸야 디오머, 센터의 일이라면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꾸야 리뜨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역의 자립을 위해 협력합니다.

캠ป์는 센터가 주민들에게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곳을 넘어, 도전과 지식을 얻는 공간, 변화와 기대가 넘치는 공간, 그리고 삶이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꾸야(Kuya)는 필리핀어로 남성 연장자를 부를 때 쓰는 호칭, 나나이(Nanay)는 어머니를 뜻합니다.)

후원 계좌

KEB 하나은행
415 - 890009 - 19504
(사단법인 캠ป์)



캠ป์ 후원하기

- www.icamp.asia
- campint@icamp.asia
- blog.naver.com/camplove11
- www.facebook.com/camp.asia
- [@camp_int](https://www.instagram.com/camp_int)
- 유튜브 검색창 '사단법인 캠ป์' 검색
- 카카오톡 채널
카톡 검색창 '사단법인 캠ป์' 검색
- 캠ป์ 게더타운 <https://url.kr/9lyca8>

캠ป์ 본부(한국)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9길 28-1 (당산동6가) 3층
Tel. 02-3147-0309, 0310 Fax. 02-3147-0308

캠ป์ 아시아(필리핀)

마닐라 : ORGA store, G/F, 115 Gamboa, Legazpi Village, Makati, 1229 Kalakhang Maynila

불라칸 : Lot A-2, Upper Quarry, Barangay Minuyan proper, San Jose Del Monte City, Bulacan

딸락 : Sapang Kuran, Barangay Moriones, San Jose, Tarlac

민다나오 : Lagudas Farm, Purok 3, Brgy. Sirib, Calinan Dist., Davao City

Tel. +63-2-697-6076